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3. 봄(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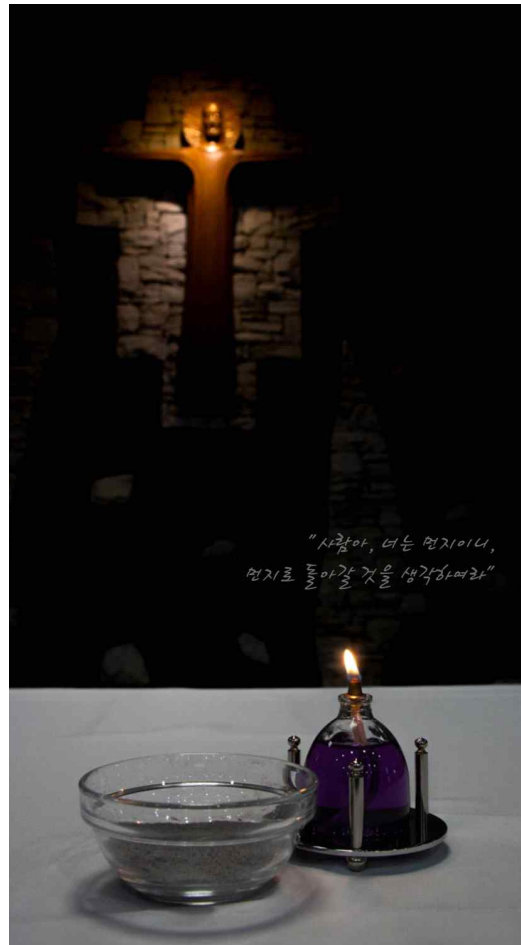
## 또다시 당신 앞에

이해인 수녀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겐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십일 만이라도  
거울 속의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십일 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 송이의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한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없어 주신 이마 위의 재처럼  
자디잔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하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가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 내면의 샘에서.....

사순 시기의 목적은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는 샘을 찾는 데 있다.  
그 샘은 깊이 묻혀있다.  
이 샘을 만날 때 우리 생명은 풍요로워지고,  
삶이 꽃피기 시작한다.  
봄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추위로 얼어붙은 마비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사순 시기의 목적은 부활이다.



바오로말씀연구소



사순 시기의 근본 정서는 기쁨이다.  
또한 내면을 정화하는 시기다.  
정화는 재의 수요일에 재의 축복으로,  
전례 중에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바르며 시작한다.  
재는 참회의 표지로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의식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각오를 표현한다.

참회는 독일어로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때보다 이 40일 동안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사순시간이 치유하는 시간,  
내적 자유를 수련하는 시간,  
정화하는 시간,  
영성을 쇄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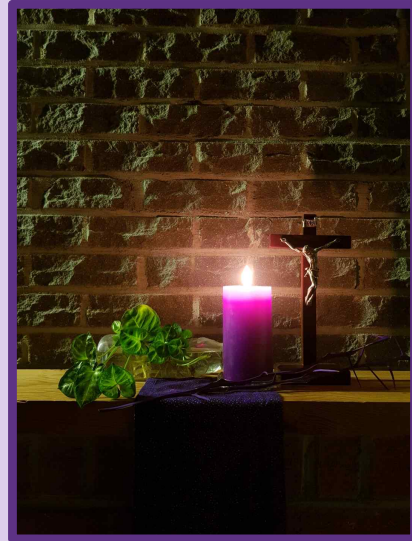


사순시기에 하는 수련은  
삶의 참된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단식을 원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말을 조심하라.  
역겨운 비방, 단죄를 조심하고  
나쁜 말에 네 귀를 열지 마라.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요엘 2,12-13)



『내면의 샘』 안셀름 그린 지음, 김선태 옮김



## 수녀님들께.....

안녕하세요. 김현숙 아녜스입니다.

10년 전이었던 2013년 1월 23일, 하나원을 퇴소하고 금호동에 있는 어울림쉼터로 가던 날이 생생합니다. 18살 고등학생 시절, 대한민국에서의 첫 발을 어울림쉼터의 식구들과 함께 내딛었고, 수녀님들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수녀님들과, 언니들, 동생들과의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 맛있는 간식과 함께 학원도 보내주시고, 시험기간이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용히 책상에 과일을 올려주시던 수녀님들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때로는 잔소리라 세심한 관심이 싫다며 투정부리고 속 썩이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안한 안식처에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안식처를 떠나 홀로서기를 한지 7년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며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텅 빈 방에서 가족 없이 오로지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에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고 이 사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 힘을 냅니다.

쉼터에서의 생활과 수녀님들께 받았던 따뜻한 사랑들이 모여 오늘 날의 씩씩한 저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게 해준 쉼터가 이제는 멀리 피정의 집으로 옮겨간다니 아쉬움도 있지만 또 언젠든 찾아갈 수 있는 친정집이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 정착하며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쉬고 싶은 때 언젠든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어웁림쉼터라는 저희들의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어 이끌어주신 많은 수녀님들과 가리봉 수녀원의 수녀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3년은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김현숙 아네스 드림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틀초경 가정동빈첸시오 갈산동성당 강경아 강귀희이레네  
강대현 강명희 강미현 강숙자(조정권)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강향주 검암성당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현 고승희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곽채현(곽영주) 구로세란의원 구유희 권순영로살리아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차연(서동철) 금창호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금자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애 김성옥 김성용 김성원 김수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옥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준 김영준가좌2 김영춘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농협) 김용수(여기정)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희 김잔디 김재식 김재욱  
김정매(박치현) 김정민국민 김정숙마리아 김정연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택어울회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신경란)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갈다 김해자 김현미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호성(박정식)  
김호송(윤군자) 김화자 김효수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보라 노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정애 당효준 마전성당 마지아(김재석) 명영희  
청라빈첸시오 문미형 문성식 문준식 문판심 민들레복지회 민병관 민정웅  
바이올가제주 박금난 박기선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근 박성분(조국제)  
박성준도미니꼬 박성창 박성현 박소진 박수인 박순옥 박승민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선프란치스카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일영 박재용 박정미  
박정순(임현서) 박정연 박준우 박찬순 박찬주 박찬희(강동연) 박태분 박해필  
박현애 박현희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밝은미래 방상만사도요한 방웅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태식 빈창숙  
사랑나무치과 서덕순(서득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석 석상령 성영주  
세류동성당 소재록(구곡의원) 소피아김지혜 손순덕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송명순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옥란 송정애 송창훈(이선경)  
송채영 송혜경 수리동초등교사회 신동규 신승일 신용숙 신유라  
신정동예로니모회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호남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양천애덕회 여장민화위  
연희동무지개 영적가족8기 예로니모신정 오말희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영희 운남빈첸시오 원당동성당 원세경 원ENG(김진식)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수민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주영(이성혜)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문선미)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양정희) 윤순희 윤정미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경석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기향 이기혁 이난엽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진 이명혜 이미란  
이민희 이병철 이복순 이상문 이성구 이성남 이성엽 이성호요셉 이소윤  
이승욱 이승은 이연실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수 이은주 이인권조혜리 이인숙로사 이임수(송재용) 이재옥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옥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소피아 이제희 이종옥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현준(이창석) 이혜숙 이흥식 이화경 인용석 인천교구  
 인천석남빈첸시오 인천재속프란 인혜정 임승옥 임윤섭 임정태 임주리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작은별김호식 장민정 장석윤 장세옥 장영문 장영순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은숙준메디케어 장현아 장형민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임  
 전순자 전영관 전제관(대아측량토목) 전주란 전총엽 전해향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정민정 정부강 정성민 정세진 정소영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은영안젤라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찬영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건희(최휘선) 조금자 조남섭 조명숙  
 조석금 조성자 조용자 조옥희 조정희 조중혁 조진면 조현봉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차영자 천정원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영남 최영숙 최영애  
 최영운(중앙고속영년) 최영호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정선(윤각의)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추기연 추상식(장형숙) 추영숙  
 추종현 축복합니다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평화장터 하옥경 한국순교성인빈첸  
 한규영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득식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성실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성프란치스코수녀회 2022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 수 입     |             | 지 출    |             |
|---------|-------------|--------|-------------|
| 전년도 이월금 | 77,381,891  | 사무비    | 30,522,737  |
| 후원금수입   | 349,511,403 | 법인 사업비 | 19,677,670  |
|         |             | 해외선교지원 | 37,420,054  |
|         |             | 새터민    | 27,173,373  |
|         |             | 이주민    | 63,750,000  |
|         |             | 공부방    | 24,890,000  |
|         |             | 기타사회복지 | 7,914,060   |
|         |             | 양성비    | 125,379,398 |
|         |             | 후원자관리  | 12,410,880  |
|         |             | 이월금    | 77,755,122  |
| 수입합계    | 426,893,294 | 지출합계   | 426,893,294 |



# 초대합니다



사별가족 모임

디딤돌

따뜻한 봄기운이 고마운 시점  
 특별하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사별 상실은 태풍이나 지진처럼  
 남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요.  
 가까운 분과의 사별을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디딤돌 2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추억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 시 : 2023년 4월 12일~5월 31일(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원

연락처 : 010-2236-1057(최남주 베로니까) 서울  
 010-8352-0939(정명숙 헬레나) 부산





## 내 삶의 축복을 헤아려 보다.....

김영선 보나. FMM 영적가족 10기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보통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 말하고, 그렇지 못할 때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반드시 실패가 아닐 수도 있음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하지요.

저는 넉넉지 않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자기 힘으로 마치고 일찍이 경제활동에 나서야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비교적 여유롭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막내인 제가 다른 형제들 중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유학을 다녀온 저는 더욱 큰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홀로 공부하며 보내던 시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때였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다년간의 학업을 학계에 소개하고 아울러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몸과 마음 전부가 고단한 시기였습니다.

제 나이 마흔 여덟인 해의 추석 다음날, 지방의 집성촌에서 태어나 서울에 사는, 사별의 상처가 있는 가톨릭집안의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30대 후반 쯤 하느님은 저에게 결혼의 선물은 주시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장으로 나갔지요. 다소 세상물정 모르는 듯 보이는 저의 외모에 끌렸던지 현재의 남편이 된 그 형제는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나이 쉰 한 살이 되는 해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50여년의 시간을 주로 혼자 살아 온 제가 문화적 경험이나 교육수준,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더군요. 이 생활을 통해 저 자신을 성찰하는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나름의 어떤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즉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완벽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 홀로서기란 상대에게 바라는 것 없이 내가 나눠 줄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 상대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로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더군요. 저의 성소인 결혼생활을 통해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을 길렀습니다. 이 여정에서 fmm 영적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fmm 수녀님들의 열린 사고와 위계질서로 각 잡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저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만난 것 같은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태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상대는 내 마음의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아옹다옹하며 살아가는 데는 서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으나 이 또한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결혼생활에서 서로 잘 맞는지 아닌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해하는데 있어 내가 탄 배를 상대와 잘 조정하며 어떤 목표점까지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데는 갈등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합한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는 소중한 가족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교구 주보 <말씀의 이삭>에서 본 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음미하는 안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살아보니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과 공동운명체로서 산다는 것에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 빈 공간을 함께 채워가는 동반자, 여행의 동행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주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 작은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실패처럼 여겨진 저의 결혼생활이 달리 보면 여러 면에서 저를 성장하도록 이끄는 축복의 성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제 삶을 지탱하는 데 버팀이 되어준 성경말씀을 소개하며 저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시편 103,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더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시편 119,92-93)